

##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계속 성경전체를 공부해 가는 가운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1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대부분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할 때에도,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의 활용에 관하여는 매우 무지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으며, 2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바울은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구름기둥은 그들에게 해가리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전체 광야생활 동안 이 구름기둥이 있었으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지시하셨습니다. 그 구름기둥이 그들을 실제로 애굽군대에 의해 궁지에 몰리도록 홍해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침례로 비유했습니다. 그 침례는 애굽에서의 삶, 즉 육신에 의해 지배되는 삶, 옛 삶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에 노예가 되어 죄 가운데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종살이, 즉 육신이 온통 사람을 지배하는, 육신의 힘에 속박된 삶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울은 육신의 힘에 관해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힘이 우리의 온 생애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알고있습니다. 애굽은 육신에게 노예된 삶의 한 유형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게 종살이하던 옛 삶은 죽고, 끝났다고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그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시는 이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시다.

**3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그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에 반석에서부터 그들에게 물이 흘러나온 그 반석(출애굽기 17:3-7)을 기억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 나와,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고, 그래서 그들은 기적으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생명을 주는 물이 흘러나온 그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우리에게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물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반석을 쳐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물이 우리에게로 흘러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한지 한참 후에(민수기 20:2-13), 그들이 신 광야에 있었을 때, 목이 말랐기 때문에 다시 모세에게 와서 심하게 공박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목말라 죽게하느냐, 우리가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오느니 차라리 애굽에 남아 있었으면 더 나을뻔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모세는 사십년 동안 그들이 투덜대며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여기 그들이 또다시 왔다고 아뢰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얼마가 지난 후에는 모세도 주님도 이 백성들에 대하여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 하셨고, 모세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석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고 하라. 그래서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잡고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을 다시 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그 일에 대해 주님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오,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하사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연고로 모세에게 진노하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석을 두 번 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바울이 이 장에서 몇 군데 우리에게 말하기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나와 광야를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를 위한 거울(본보기)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죄에게 종살이하다가 나와서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 즉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을 즐기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림처럼 묘사하셨습니다. 이런 충만한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는 친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번 친 반석은 절대로 다시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오직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반석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반석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 생명수는 아낌없이 우리에게로 흘러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 반석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림을 훼손시켰습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두번째 칠 때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삽화를 망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그리려고 하시는 그림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그 반석을 두번째 쳤을 때 하나님이 그리시던 그림을 얼마나 심하게 망쳐놓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두 번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당신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계셨으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은, 6절에서 읽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5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들의 광야생활에는 분명히 합법적인 경험도 있었지만, 비합법적인 경험도 있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는 아마 한 달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40년이 걸렸습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40년을 비합법적인 광야의 경험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것을 비유해 보면, 우리는 죄에게 종살이하다가 나와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에도 육적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먹던 마늘과 부추와 그런 양념들을 생각했고, 고기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하면서 옛 삶을 되돌아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옛 삶에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을 때, 많은 경우 그들은 구습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옛 삶을 꼭 잡고, 완전히 버리기를 싫어하고, 옛 삶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지 않고 옛 관습과 생각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목적은 물론 그들이 옛 구습을 제거하는데 일종의 도움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을 부양하시기 위해 아침에는 이슬로 낮에는 만나로 주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시는 의도는 그들을 충만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초목이 우거진 땅, 농경업에 최고인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 땅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은 종종 찬송가 등에서 상징적으로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보이는 집, 주 날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낮을 그 곳에서 뵈오리(찬 224).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찬 291).” (주: 역자가 한국 찬송가에 있는 것으로 씀). 우리는 요단강에 대해서 노래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렇게 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은 아직도 싸워야 했고,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해야 했으며, 때로는 그들이 패배도 경험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싸우지도 않을 것이고, 패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하나의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안에서 삶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원하시는 이 삶은 기쁨과, 풍성함과, 예비하심과, 성령 안에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사람의 죽음이며, 또 우리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와의 이 동일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으로 인해, 육이 지배했던 옛 삶을 끝마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새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후반부와 8장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8장으로 들어가는 삶인데, 그곳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삶입니다. 그 새 법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 성령의 법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고 여기고, 죄의 몸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고 여길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싸웠지만, 한번도 어떤 지역을 실제로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축복들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까지는 어떤 지역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 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기 시작하고, 지역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비합법적인 광야의 경험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적들을 쫓아내시리라고 하셨으며, 또 그들이 소유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를 대표하여 한사람씩, 12명의 정탐군을 보낸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군은 그 땅에 대하여 악한 보고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은 하늘을 닿았고, 사람들은 거인어서, 우리들은 그들의 눈에 메뚜기 같았으며, 그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줄만한 땅이 못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하여 매우 낙담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한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군은 말하기를, 오, 그 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가 이 큰 포도송이를 에스골 골짜기에서 베어왔는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가 보시오. 우리가 그것을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와야 했노라. 그러나 도성의 성벽은 높지만, 아,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 사람들은 거인들이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열 명의 정탐군의 말을 듣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노라.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인도해 갈 지도자를 뽑자. 더 이상 가는 것은 무의미하니, 우리가 옛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겠노라 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 나를 너희들이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사십 년 동안 여기 광야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합법적인 광야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의 결핍으로 온 결과였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그리스천으로서의 경험은 광야의 경험과 같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주님 안에서 즐거운 삶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행복하기에는 너무 세상적이고, 또 세상에서 행복하기에는 너무나 그리스도적입니다. 당신은 중간 상태, 즉 광야에 있습니다. 당신은 때로는 애굽에 가깝고, 또 때로는 약속의 땅에 가깝지만,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

곳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그러한 삶은 당신이 애굽에 얼마나 더 가까이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총만하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며,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아름다운 그림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6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함이니,** 그들은 애굽의 마늘과 부추와 고기와 육신의 것들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들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7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가 40일 동안 거기에 있었으므로,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와서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케 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그가 죽었을 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40일간 소식이 없으니, 어찌 되었는지 모를이라. 그리하여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모든 귀의 금고리 등을 빼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그것들을 녹여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백성들이 말하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며 내일 축제를 열리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 백성들이 나아와 화목제 등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는 큰 파-티를 하고는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는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돌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자, 모세가 가로되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도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만들어진 첫 번째 우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8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 때는 모압 왕 발락이 모압 땅으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발람을 고용한 때였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자 발락 왕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굉장한 부자로 만들어 줄려고 했는데, 만약 네가 저들을 저주했다면, 내가 너를 굉장한 부자로 만들었을 텐데, 너의 하나님이 네가 부자됨을 허락지 않으셨도다. 그러자 발람이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나는 저들에 대하여 어떤 마술도 저주도 할 수가 없도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비록 저들을 저주할 수는 없어도 저들에게 어떻게 저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지는 아노라.

너희 백성들로 하여금 내려가 저들을 환영하고, 저녁에 저들을 집으로 초대하라. 저들이 너희의 집으로 올 때, 매우 은혜스럽게, 또 친절하게 대해 주어라. 그리고는 너희들의 신들을 가지고 나와 저들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우리들이 섬기는 신들이라고 말하라.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들을 숭배하는지 보기를 원하느냐? 묻고, 그들이 너희의 신들을 숭배하도록 인도하라. 그러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지라, 그 분께서 저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라. 우리는 발람의 교활한 충고를 봅니다. 그리고는 발람은 계속하여 말하길, 그 곳에 젊은 여자아이들을 내려보내어, 남자들을 농락하여, 흥분하게 되면, 그들을 데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의 다산의 여신들을 가지고 나와 이르기를, 이것이 우리가 숭배하는 음란의 신이라 하라.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을 숭배하는지 알기를 원하는지를 묻으면서 저들을 이런 방법으로 유혹하라. 그러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주하라.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의 충고를 따랐고, 저들의 간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떨어졌습니다. 또한 이르기를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민수기에 있는 이 이야기에 어떤 모순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으로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총 이만 사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고, 전체 종합으로는 이만 사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매우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당신이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모순이 사라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고, 총 합하여 이만 사천 명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숫자를 취급할 때 실제 숫자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알파벳을 숫자를 표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가 다른 숫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koph라는 글자는 숫자로 9입니다. 그런데 그 글자 위에 한 점을 찍으면 900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글자 위에 두 점을 찍으면 9,000이 됩니다. 옛 사본으로 글자 위에 몇 개의 점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글자들 위에 있는 작은 점들의 표시로 9 이거나 900이며, 8 또는 800, 8,000이 됩니다. 원래의 원본이 없으므로,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 숫자를 알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9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자손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중에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뱀들은 불 같이 저들을 물었으며, 그것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울며 간청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이스라엘 진 중앙에 두어서,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가 그 진 중앙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다면, 그는 뱀에게 물려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뱀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놋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그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죄가 장대 위에서 심판되어졌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은 뱀에게 물린 것으로 인해 죽지 않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께 여쭙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니고데모야 네가 유대인 중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들려진 그 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였습니다.

그것은 장대 위에,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았고, 우리의 허물의 댓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었으되,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심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이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본보기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노예생활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계 안에 있는 성령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며, 간음을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광야의 경험들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에 대적하여 원망하므로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10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 역시 민수기 14장에서 언급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므로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11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기록되어진 것은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러한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에 일어났지만, 그것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고있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일은 초대 교회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교회가 주님이 언제든지

재림하시리라는 기대 가운데 살기를 의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깨끗케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밤에 재림하실 수 있다는 그 신념은 매우 깨끗케 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오늘밤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과연 나는 준비가 돼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행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한일서 3:3). 교회 안에 이러한 깨끗케 하는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물질적인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어떤 순간에라도 오신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세상의 물질주의에 사로 잡혀 있는 우리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1절은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관해서는 아주 가벼운 관계만 지키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이러한 교훈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 기록되어졌습니다.

**12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러한 일들, 즉 우상 숭배와, 육체적이나 영적인 간음, 주님의 일들에 대적하는 원망하는 것들이 당신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선 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섭니다.

**13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당신이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일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특급 성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과 계속 싸웁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며, 우리는 이런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종종 탄식하며 자유로와 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며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몸 가운데 사는 동안은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갖고 있을 것이고, 또 생물학적인 본능적 욕구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드시 피할 길을 택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셨는데 내가 그것을 선택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신실치 않은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셨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는데 내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내가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경고를 주셨음을 또한 증거해야 합니다. 그 분께서는 조심할 것을 나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라고 나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내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신실하셨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달아나야 합니다. 요셉의 경우 참으로 피하기 힘든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도망을 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런 것들로부터 도망하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인데,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4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것으로부터 도망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피할 길이라! **15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나는 너희가 그것을 알만큼 지혜롭고, 또 그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노라.

이제 바울은 성만찬식에 대해 말하며 왜 이것을 성찬식이라고 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6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예수께서 저녁식사 후 잔을 드시고는 말씀하시길,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녁식사 후에 가졌던 유월절 축제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잔이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잔”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제 동안 세 잔이 있었는데, 저녁식사 후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잔은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축복하는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무교병(Matzo: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떡)의 세 조각 중 가운데 조각은 부러져있습니다. 우리가 떼는 그 떡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가 신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참여할 때에, 우리 각자는 같은 요소인 예수님께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당신은 주님과 하나되어 교제에 들어왔고 나 또한 주님과 하나되어 교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함께 하나되어 연합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전부입니다.

**17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 비록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룹니다.) 우리는 모두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초월하고, 또 교파를 초월하여,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신자들이 있는 모든 교회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쌓아놓은 장벽을 넘는 일이며, 갈보리 채플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보아야하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해 짐을 져야합니다. 우리의 경계를 초월하여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의 지역사회 안에 주님의 축복을 받고 번창하고 있는 다른 사역들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제로 공통된 것을 나눈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소서!

**18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드러진 제물에는 여러 종류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속죄제를 위해 드러진 예물이 있었고 또한 번제물이 있었는데, 이것은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칠 것이라는 헌신의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제를 위한 제물입니다. 내가 새끼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새끼 양을 죽이고 기름을 가져다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으면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불에 구울 때 좋은 냄새가 나는데 그것은 불에 떨어지는 기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제사장이 그 자신을 위해서 양의 한 조각을 취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 굶게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둘러앉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 교제를 갖는 잔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일부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참여하시고, 우리 또한 그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앉아 먹는다는 개념은 참으로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의 일부분을 취하셨고, 우리가 그 양의 일부분을 먹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화목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하여 바울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드러진 제단의 제물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9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신이나 우상들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자유를 행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어떤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고린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무엇이냐? 우상에게 드러졌던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앞에도 말했듯이, 우리는 우상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아노라. 그러나 나는 말하노니, **20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드러지는 제물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주피터나 다른 어떤 신들의 신전에 그들의 제물을 바칠 때, 그들은 그들의 제물을 사단이나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화목 제물로 드릴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러 온다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배타적인 것입니다. **22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재미있는 것은 한 쪽을 택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어떤 것들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진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나는 경주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늦추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앞장에서 바울이 말하기를(고린도전서 9: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 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주를 달리고 있고 우리는 그 경주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진보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나 모든 것이 필요하거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나를 세워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는 것 그것은 가합니다. 죄는 아닙니다. 난폭한 미식 축구를 TV에서 보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세워나간다고는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하고 고려하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자유를 갖고 있지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직 믿음에 연약한 형제를 생각하고 배려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당신이 행하는 것을 보고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산타 마리아에서 시무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교회의 교인인 한 여인이 아주 잘 알려진 목사님이 인솔하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이 술을 마시며 어떤 여인과 술 주정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크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실족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성도는 집에 돌아와서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행하는 자유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그 자유를 잘못된 면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만약 그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하여 연약한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그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나는 실족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을뿐더러 남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를 넘어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자기의 유익만을 찾지 말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바울은 두 세 가지 흥미로운 규율을 줍니다. **25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보통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먼저 우상들에게 제물로서 바쳤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한 부분은 떼어서 사제들이 항상 받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아서 나머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고기의 대부분은 우상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으로 신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 아닌지를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 양심을 위하여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소화 기관을 통하여 배설물로 몸밖으로 나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통과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26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27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어떤 가야만 하는, 의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초대가 있습니다.)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 앞에 볼고기가 놓여 있거든,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러졌던 고기인지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시오.

**28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밋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양심의 가책과 또한 너에게 알게 한 자를 위해 먹지 말라.

**29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당신의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먹어도 되지만, 당신 자신의 양심만 가진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이 가함을 안다고 고린도의 몇몇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 자신을 위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양심”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라. 그러나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왜 내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야합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30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다른 말로, 내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구하여 깨끗하여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말하기를, 내가 감사하고 먹으면서 왜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남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바울이 답하기를, **31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 하나님, 이 진리를 꼭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붙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6절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견고히 서 있습니다. 당신이 말로나 행동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판단하는데 이것을 표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하는가?

**32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울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33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또 나는 그것을 할 자유가 있어. 나는 그것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말씀에 대한 이해와 주님과 의 관계로 인하여, 나는 이런 것을 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을 실족시키기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행하며, 연약한 형제들을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고의 이해력과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자유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실족케 하는 일은 삼가야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를 행함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나의 확신을 초월하여 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들과 교훈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속박과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마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성령 안에서 행하여, 그 보배로운 약속들을 상속받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행하고, 연약한 형제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고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